

## 中國 農業에 있어 ‘雙層經營’의 形成과 分化: 北京市 近郊의 事例研究\*

李 日 榮\*\*

### 논 문 초 록 :

1978년 말을 계기로 집단농업이 해체되고 개별경영이 지배적으로 된 이후 중국 농업에는 다양한 경영형태가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국 농업경영의 실태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일환으로, 향후 중국 농업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대규모경영에 관한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北京市 근교의 順義縣에서는 1984-1986년에 걸쳐 농가생 산도급책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집단경영체제가 개별경영화하였다. 1986년부터는 ‘대규모경영’의 실험을 개시하여 집단농장 설립을 본격화하였다. 이 가운데에서도 C村은 ‘雙層經營’제도가 기본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집단농장과 개별농가의 대규모경영이 분화되는 과정에 있다. 향진기업의 광범위한 존재와 집단농장의 운영은 전업농 및 대규모 개별농가 발전의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전업농경영이 수입격차를 유발하고 있다면 비농업부문에의 취업이 수입격차를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 지역의 특징적 현상이다.

핵심주제어 : 중국 농업, 사회주의 경제개혁, 대규모 농업경영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P2

### I. 서 론

흔히 중국 경제개혁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 미시경영메커니즘의 개혁이 전체 개혁의 시발점으로,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성장한 부문이 개혁의 주도부문을 담당했다는 점, 둘째 실험 후 확산, 점진적 개혁방식으로 개혁과정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이 제시된다(林毅夫 外, 1995, pp.255-283). 중국 농업의 변화는 이러한 중국 경제개혁의 중요한 특징이 고스란히 반영된 부문이다. 중국 농업은 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여러 조치로부터 시작되어 급속한 성장을 시현했

\* 본 연구는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 해외지역연구 과제로 채택되어 수행되었습니다. 익명의 두 분 심사위원께서 주신 세심한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 한신대 국제·사회학부 조교수

으며, 기존 제도하에서의 다양한 실험을 통한 점진적 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980-1982년에 집단소유의 토지사용권이 대거 개별농가에 분배되었지만, 그렇다고 기존 제도인 집단의 기능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雙層經營’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이러한 사정의 응변하고 있다. 雙層經營이란 집단의 통일경영기능과 농가의 개별분산경영의 상호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sup> 이 용어가 정식으로 사용된 것은 1986년 1호문건에서부터였으나, 이러한 개념이 명시된 것은 1982년 1호문건으로 소급될 수 있다. ‘雙層經營’이 농가생산책임제를 다른 각도에서 파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雙層經營’의 형성은 농가생산책임제의 도입과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白石和良, 1994, pp.11-27). ‘雙層經營’이라는 용어의 등장과 관련된 이러한 해석이 정립되는 과정 자체가 농업경영조직의 개혁에 있어 실험 후 확산, 점진적 개혁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농업부문 전체로 볼 때에도 전화과정은 일순간에 일직선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치고 다양한 양상을 띠면서 이루어졌다. 개혁의 전개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4개 단계로 나뉘는 것으로 인식된다. 첫째, 농가가 경영주체로서 지위를 확립하고 농업이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는 단계(1979-1984), 둘째 농산물의 ‘통일수매’, ‘할당수매’제도의 개혁이 진행되고 농촌의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단계(1985-1988), 셋째 ‘경제조정’정책의 실시와 농업에 있어 ‘增產不增收’ 현상이 발생하는 단계(1989-1991), 넷째 농촌시장경제 체제 정비의 모색단계(1992-)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넷째 단계에 경영 및 소유제도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농지의 도급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이용권의 유동화 촉진메커니즘을 확립한다는, 농지제도의 확립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 이 시기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연해지역에서는 ‘適度規模經營’이라는 대경영을 육성하고 중서부지역에서는 농촌의 未利用荒地의 이용권을 경매에 붙여 배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집단경영의 농촌기업에 ‘주식합작제’와 임대, 설비의 경매 등 여러 가지 소유권의 재편방식에 관한 실험이 시도되었다(中國農業部, 1995, p.36).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 농업에는 다양한 경영형태가 형성되게 되었다. 국외에서는 중국 농촌에 관한 실태조사가 특히 1970년대 말 개혁 이래로 꾸준히 이

1) 이 개념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이하 제II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루어져 왔다.

개혁 이후 중국 국내의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실태조사의 선구는 '中國農村發展研究組'가 실시한 조사로, 그 결과는 4권의 『農村·經濟·社會』로 출간된 바 있다(中國農村發展問題研究組 編, 1985, 1986). 중국 내에서 농촌조사의 획기를 이룬 것은 중앙당 서기처 농촌정책연구실이 주도하여 실시한 대규모의 '農村社會經濟典型調查'이다. 이는 1984년 겨울부터 1985년 봄까지 전국 28개 省·市·自治區의 당위원회가 8,680명의 조사대를 조직하여 71개 縣, 93개 鄉, 272개 村, 3만 7,422개 농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中共中央書記處 農村政策研究室資料室 編, 1988). 이후 이러한 대규모의 조사가 전국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농업부와 중공중앙 정책연구실에 의해 각지의 관측점에 대한 조사가 해마다 이루어져 왔다.

서구의 경우 홍콩에 유입된 난민을 대상으로 개혁 이전 廣東省 농촌사회에 대하여 조사한 Parish and Whyte(1978)의 연구가 나온 이후 중국 본토에 대한 실태조사가 본격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廣東省 東莞縣을 조사한 Sulamith and Potter(1990), 河北省 藁陽縣 五公에 관해 역사적 조사를 실시한 Friedman, Pickowicz and Selden(1991), 河北省 獲鹿縣 大河鎮을 조사한 Putterman(1993)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연구자들도 실태조사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石田浩(1991, 1993, 1996)는 上海 교외의 한 농촌의 장기적·역사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滿鐵의 '화북농촌관행조사'의 연장선상에서 中生勝美(1990)는 山東省의 冷水溝村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조사하였으며, 三谷孝(1993)는 北京市 房山區 吳店村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田島俊雄(1993, 1996)은 山東省 武城縣 외 9개 지역을 농업구조·농업경영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다. 中兼和津次를 중심으로 한 '中國農村研究會'는 中國 農業部 農村經濟研究中心, 中國社會科學院 農村發展研究所 등과 공동으로 8개 省, 8개 縣에 대하여 정치·풍속·관습·의식 등 비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였다(中兼和津次, 1997).

한편 그간 냉전체제의 한 가운데 위치하였던 한국의 경우 1992년 한중수교 이전까지 중국 사회에 대한 마이크로적 연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중국 농촌에 관한 실태조사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중국 농촌의 실태조사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조직의 다양성을 미시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나아

가 중국 경제개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사례 분석의 대상지역으로는 집단조직의 경제력과 개별경영의 역동성이 모두 강한 마을을 선택함으로써 향후 중국 농업구조 변동의 중요한 흐름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하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사례조사를 위한 전제적 논의로서 농업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전국 차원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사례조사의 개요를 서술한다. 제Ⅳ장에서는 조사대상 마을이 속한 縣의 농업경영상황을 고찰했다. 제Ⅴ장에서는 사례마을의 개황, 농지조정, 집단경영과 개별경영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와 마을 내 경영분화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 Ⅱ. 전제적 논의

### 1. ‘聯產承包’와 ‘雙層經營’

1970년대 말 이래 중국의 농업경영체제가 집단농업으로부터 가족농업으로 이행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집단경영 방식에서 ‘雙層經營’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中國 農業部가 발간한 『中國農業發展報告 '95』<sup>2)</sup>에 의하면, 1979년 이래 중국 농업경영체제의 개혁핵심은, 농가생산도급책임제(家庭聯產承包責任制)를 주체로 하는 생산책임제의 실시, 그리고 집단의 통일경영과 농가의 분산경영을 상호결합하는 ‘雙層經營’체제의 실시를 추진하여 농촌경제의 마이크로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中國農業部, 1995, p.30).

여기에서 농가생산도급책임제는 농지의 집단소유제를 전제로 농가에 대해 농지이용권을 분배하여 경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包產到戶(생산고도급제)’, ‘包幹到戶(경영도급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농가가 집단경제조직과 농업생산도급계약(承包合同)을 체결하여 매년 일정의 농지도급비(土地承包費)를 납입하고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包幹到戶’를 채용

2) 이는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의 명칭으로 간행한 최초의 중국 농업의 개설서라 할 수 있는데, 중국 농업정책의 내용과 그 평가에 관한 농업부의 공식견해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문헌이다.

하고 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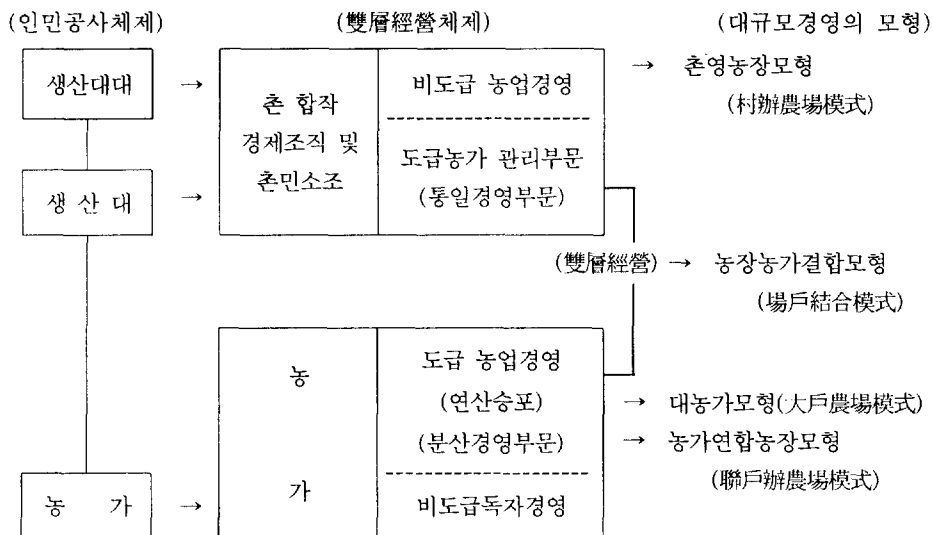
이러한 생산책임제가 채용됨에 따라 종래의 집단경제조직에서는 농업생산자재의 공급, 기계작업·방제·관개 등 농작업의 조직적 지원 등을 하는 집단의 통일 경영기능이 강조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농촌의 농업경영체제는 집단의 통일 경영기능과 농가의 개별분산경영을 상호결합하는 '雙層經營'체제라는 것이다(中國 農業部, 1995, p.292).

형식논리적으로 농가생산도급책임제는 '雙層經營'체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농가생산도급책임제의 실시가 집단경제의 기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하고 있었다는 것이 현단계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면 농가생산도급책임제와 '雙層經營'체제는 내용상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하나의 실체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파악한 것일 뿐이다. 개념적으로 '聯產承包'가 농업생산책임제의 실시에 강조점을 두는 표현이라면, '雙層經營'은 농업경영의 주체에 중점을 두는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이다. 물론 실제로 '聯產承包'는 농가의 분산경영을 강조하는 뉘앙스가 강한 표현이며, '雙層經營'에는 집단의 통일경영을 중시하는 경향이 내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白石和良, 1994, pp.6-7).

필자의 견해로는, '聯產承包'라는 개념이 종래의 집단경영방식으로부터의 전환이라는 내용은 잘 표현하고 있지만, 인민공사체제의 해체가 완료된 현재 중국 농업경영체제의 여러 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현단계 중국 농업경영체제의 핵심적 요소가 토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인민공사는 해체되었지만 농촌집단경제조직의 기능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고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雙層經營'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장점을 취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그림 1〉 참조).

3) 생산책임제 개혁이 시작되던 당시, 가족경영의 두 가지 형태가 거의 동시에 출현하였다. 첫째는 包產到戶로, 개별농가는 집단소유의 토지를 분배받아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만, 생산대가 모든 생산물을 수합한 후 생산책임을 초과달성한 개별농가에 대하여 그만큼 추가적으로 배분해 주는 제도이다. 둘째는 包幹到戶인데, 여기에서 생산대는 토지를 개별농가에 분배하고 여기에서 나온 수입은 계약에 따라 국가세수와 집단유보분을 제외한 후 전부 개별농가에 귀속된다.

〈그림 1〉 중국 농업경영체제 개혁의 기본구도



자료: 白石和良(1994), 潘耀國 外(1995)의 서술을 토대로 필자 작성.

## 2. 규모확대를 위한 다양한 경영형태의 등장

농가가 농지의 도급경영권과 이용권을 획득한 이후 농업경영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기되었다. 첫째, 농가가 토지경영에 대하여 안정된 전망을 갖도록 하여 단기적인 시점에서 약탈적 경영활동을 막으면서 경지가 세분화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농지자원의 효과적인 재분배를 촉진하여 토지생산성 향상과 농업생산의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농지를 지니지 못한 농촌인구도 농지경영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농가생산도급 책임제라는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면서 자원배분을 합리화시키는 방안으로 농지 이용권의 유동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中國農業發展報告 '95』는 농지이용권을 유동화시키는 방식으로 '兩田制', '適度規模經營', 農村 未利用荒地 利用權의 競賣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中國農業部, 1995, pp.229-233).

먼저 '兩田制'와 관련하여, '兩田'이란 바로 자가소비용 식량을 생산하는 '口糧田'과 국가수매 및 시장판매를 위한 '責任田'을 의미한다. '口糧田'은 자가소비용 식량을 생산하는 곳으로 종래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라 분배하고, '責任田'은 국가수매 및 시장판매를 위한 곳으로 가구원수, 가구의 노동력수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보통이다(中國農業部, 1995, p.230).<sup>4)</sup>

'兩田制'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보급되었으나, 이 제도가 보편적·장기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기 보다는 과도적·단계적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제도는 농지가 희소한 지역에서는 적용되기 어렵고 또 결국은 농지이용권의 유동화와 집중에 새로운 장애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葛好東, 1998, p.20).

한편 농촌 未利用荒地 이용권의 경매라는 농지자원의 유동화방식도 주로 중·부·서부의 경제미발달지역, 예컨대 山西, 陝西, 黑龍江, 雲南, 湖南 등지의 구릉지역과 산간지역에 적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중국 전체 차원에서 보편적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中國農業部, 1995, p.232).

현단계 중국 농업의 기본과제가 중국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식량생산의 확보와

p.231).

浙江省 樂清市에서는 토지의 유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지에 소유권·도급권·사용권 등 3권을 설정하였다. 소유권을 지닌 行政村은 세수를 획득할 수 있다. 농업세는 국세로 중앙정부에 귀속되지만, 行政村에서는 각종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地代로 이해할 수 있다.<sup>7)</sup> 도급권은 도급된 경지를 제3자에게 대여할 때의 임대료로 도급자가 취득하는 권리이다. 사용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는 경작자가 얻는 수익이다(日中經濟協會, 1997, pp.83-85).

‘適度規模經營’은 양호한 자연조건, 비농업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鄉鎮企業의 발달, 우세한 경제력, 村간부의 집약적 경영의식이 갖춰진 연해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潘耀國·崔傳義(1995)는 그 경영모형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첫째, 江蘇省 無錫市 錢橋鎮 勝豐村의 촌영농장모형(村辦農場模式)에서는 토지조정을 통하여 책임전을 촌영농장에 집중시켰다. 둘째, 無錫市 南西漳村에서는 농장통일경영하에서 부분작업을 농가나 노동력에 도급시키는 농장농가결합모형(場戶結合模式)을 채택하였다. 셋째, 溫州市의 대부분에서 채택되는 방식은 대농가모형(大戶農場模式)이다. 여기에서는 가정경영을 위주로 하되 농번기에는 임시고를 고용하며, 일부 대규모농가는 상시고를 고용하기도 한다. 넷째, 山東省 壽光市의 농가연합농장모형(聯戶辦農場模式)에서는 村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업 이외 부문에 취업한 겸업농가의 토지를 집중시키고 이를 일부 농가에 재도급하였다(〈그림 1〉 참조).

### Ⅲ. 사례조사의 개요

미국, 일본 등의 중국 농촌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량의 양적·질적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었다. 이들은 중국측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도 긴밀한 협력하에 다

7) 농지는 명목적으로 향촌집체의 소유로 行政村의 각종 비용이 이 소유권에 대한 지대라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농업세는 국가가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농업수입을 얻는 단위나 개인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지닌 稅種의 하나이다(張浩·馬艾德, 1991, p.56). 이 농업세의 부과기준이 과거나 현재 모두 농업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지대를 향촌의 각종 비용과 국가의 농업세로 분할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수의 훈련된 현지조사원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이들의 조사지역이 중국 전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또한 광범위한 조사항목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랜 현지조사의 역사와 풍부한 경험축적, 지속적인 연구비의 뒷받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중국과 오랫동안 미수교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본격적인 중국 연구의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각 부문에 있어서 미시적 접근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직 많은 비용이 사용되는 조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 변화의 추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조사지역은 한편으로는 현재의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당국의 전시효과만을 나타냄으로써 중국 농촌의 보편적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곳도 피하여야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접근하게 된 농촌마을은 중국 정책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대규모경영(適度規模經營)을 실행하고 있는 지역 내에 존재하지만 정부의 정책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곳은 아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입안된 정책이 기층단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정책으로 제시된 농업경영의 기본구조 안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영의 자율적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조사지역의 선정은 1996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과제(사회주의농업의 체제전환과 북한농업의 전망)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필자는 4개 마을의 개괄적 현황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는데, 본 연구에서의 조사지역에 대한 예비적 고찰이 이를 통해 이루어진 셈이다. 1997년 8월에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해당 마을의 간부들과 논의하였으며 1998년 2월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 IV. 北京市 順義縣의 농업경영

北京市의 기후는 대륙성기후에 속하여 여름은 고온다습하고 겨울은 한랭건조하다. 그리하여 1996년 평균기온은 12.7℃, 1월 평균기온 -2.2℃, 7월 평균기온 25.5℃를 기록했다. 1996년 강수량은 700.9mm로 반건조지역에 해당한다.

北京市 외곽 동북쪽에 위치한 順義縣의 1996년 현재 총면적은 980km<sup>2</sup>, 상주인구는 53만 5,000명, 인구밀도는 546명/km<sup>2</sup>이고, 縣 전체에 16개 鎮, 11개 鄉, 426개 行政村이 있다. 총인구는 55만 7,000명으로 17만 4,000호인데, 그 중 농가가 13만 7,000호, 비농가 3만 7,000호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농가의 겸업화와 비농업의 발전에 따라 鄉으로부터 鎮으로의 승격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총경지면적은 4만 8,000ha로 이 중에서 식량작물 경작에 사용되는 경지는 4만 ha이고, 채소경작에는 7,407ha가 이용되었다. 즉, 順義縣의 농업은 식량생산을 주로 하면서 北京市에 채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北京統計年鑑』, 1997).

順義縣은 해발 25-45m의 평원이 95.7%를 차지하고 있고, 경지는 극소수 논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밭으로 구성되어 있다. 順義縣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이용한 관개시설이 발달한 지역으로 밭에도 대부분 관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와 수자원의 손실이 큰 수로식 관개에서 점차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방식

은 대형기계의 도입을 계기로 밀과 옥수수의 2모작체제로 완전히 이행하였다. 즉, 종래에는 작기의 경합으로 2년3작 또는 간작이 이루어졌으나, 대형 트랙터와 소형 콤바인의 도입에 따라 여름 노동피크기에 적기작업이 가능하게 되고 토지이용도가 향상되었다. 완전한 2모작이 시행된 곳이 1986년 1만 8,000ha에서 1987년 2만 7,000ha, 1988년 2만 8,000ha로 증가되었으며, 1991년에는 곡작을 2회 경합에 2

한편 산업구조 역시 현저하게 변화하였다. 1980년대 이전에는 농기구수리공장, 농기구부품공장을 중심으로 약간의 공업이 존재할 뿐이었으나, 1980년대 들어 鄉鎮企業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sup>9)</sup> 그리하여 1988년에 벌써 順義縣 鄉鎮企業의 생산액이 15억 元, 이윤액 3,016만 元, 종업원 2만 명에 달하였다(閻崇年 主編, 1991, p.11). 1996년에 이르면 順義縣 鄉鎮企業의 기업수는 1,225개, 종업원 수는 9만 3,000명, 총수입액은 46억 5,000만 元, 이윤액 2억 1,616만 元에 이르게 된다(『北京統計年鑑』, 1997).<sup>10)</sup>

順義縣 농촌공업기업의 발전은 농촌의 취업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中國分縣農村經濟統計概要 1990』에 의하면, 1990년 順義縣의 농촌노동력은 20만 6,000명, 농촌 공업노동력은 6만 6,000명이었다. 즉, 이 시기에 이미 鄉鎮工業과 村 및 村이하의 공업기업에서 일하는 노동력이 전체 농촌노동력의 32%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97 北京統計年鑑』에 의하면 順義縣의 1996년 농촌노동력은 18만 8,000명, 향진기업 종업원수는 9만 3,000명으로 나타나 있다. 즉, 鄉·鎮단위의 기업만을 포괄하는 鄉鎮企業의 종업원이 전체 농촌노동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社隊企業이 鄉鎮企業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후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順義縣의 鄉鎮企業은 노동력의 주요한 취업선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농가생산도급책임제가 실시되고, 鄉鎮企業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농업노동력은 鄉鎮企業쪽으로 급속하게 유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식량생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田島俊雄, 1996, pp.325-327).

첫째, 농가생산도급책임제 실시 당시 4만 7,000ha의 경지에 대한 이용권이 12만호의 농가에 분산됨에 따라 호당 경지면적은 약 0.4ha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농가의 겸업화가 진행되면서 농가의 식량생산은 자급생산 이상의 의미는 없게 되었으며, 국가에 대한 수매임무를 달성하기도 어려워졌다.

둘째, 圃場에서의 작업이 개별화됨에 따라 기존의 대형농기계 이용이 곤란해졌다. 기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면적이 자가노동력 공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고용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9) 鄉鎮企業은 1984년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첫째, 향영기업(鄉辦企業)과 촌영기업(村辦企業) 등 농촌행정단위가 운영하는 향촌기업(鄉村企業), 둘째 농민 간의 협동조합기업(聯戶企業), 셋째 경영주를 포함하여 종업원 7명 이하의 개인기업(個體企業), 넷째 각 소유제가 출자하여 세운 기업(聯營企業)이 바로 그것이다.

10) 달러와 元의 교환비는 1988년 1 : 3.72, 1996년 1 : 8.31이다.

셋째, 縣 및 鄉·鎮 정부는 식량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에게 비료·기계구입, 대형기계작업, 식량판매장려금 등 보조금을 지급해야 했다(以工補農). 이는 생산비 보상을 위한 마이너스의 지대로 그 액수는 매년 평균 3,000만 元, 10a당 60元에 달하였다. 그러나 각종 보조금이 농가의 생산과 판매에 미치는 인센티브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順義縣에서는 1984년 2,900호의 식량생산 전업호를 창설하였는데, 이들이 縣內 경지의 11.5%인 5,400ha의 경지(호당 1.9ha)를 도급받았다. 그러나 1-2년 내에 경지이용권을 반납하는 농가가 속출하여 1987년에는 2,345호만이 남게 되었다. 이에 縣정부에서는 ‘개별농가’의 차원에서 ‘대규모경영’을 발전시키는 것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順義縣에서는 1986년 당위원회 농촌공작부의 지도하에 ‘대규모경영’의 실험을 개시하였다. 당시에는 縣內 433개의 행정촌 중에서 170개 村이 실험구로 지정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405개 村으로 실험을 확대하여 집단농장 설립이 본격화되었다(菅沼圭輔, 1989, p.97).

順義縣 농업의 집단농장을 통한 규모확대는 농업의 기계화와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1986-1990년에 스프링클러 관개 및 배수시설 등 농업고정자본 투자에 2억 8,000만 元이 투입되었다. 기경, 정지, 파종은 기계화되었으며, 방제는 비행기로 통일적으로 실시하였다. 수확의 경우 기계화가 상대적으로 뒤쳐진 편이었다. 자무쓰(佳木斯)제 밀 수확기와 소련으로부터 수입된 옥수수 수확기가 보급되었으나, 1990년 단계에도 옥수수 수확면적의 60%는 수작업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농기계는 기본적으로 村의 집단소유에 속하여 1984-1986년 개별경영화의 시기에도 기계는 집단소유를 유지하였다. 현재의 집단경영은 물론이고 개별경영의 경우에도 기계작업은 村에 조직된 전업적인 ‘農機隊’에 의한 임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 기계장비가 불충분한 경우는 향차원의 ‘農機站’에 작업을 위탁하기도 하였다(田島俊雄, 1996, pp.327-328).

1980년대 후반 順義縣 농업은 집단농장을 중심으로 한 규모확대를 통하여 농촌노동력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파종면적을 유지하면서 식량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順義縣의 농업생산 구조도 새로운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식량생산은 다시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채소와 과일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여 10년 동안 5-7배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順義縣 농업개황

	농촌노동력 (만 명)	파종면적 (만 ha)	식량생산량 (만 톤)	채소생산량 (만 톤)	과일생산량 (톤)	계란생산량 (톤)	우유생산량 (톤)
1985	22.0	9.9	42.7	12.7	6,174	19,500	1,700
1990	20.6	10.0	55.5	38.2	16,999	33,421	2,055
1995	18.9	9.3	45.1	77.4	35,047	n.a.	n.a.
1996	18.8	9.3	42.7	83.1	26,400	26,748	1,506

자료: 『北京統計年鑑』, 1997.

이는 1990년대 들어 심각하게 나타나는 농·공 간의 소득격차를 극복하려는 개별농가들의 노력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차원에서도 1993년경부터 수익성이 높은 농업을 모색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3-4년의 실천을 거친 끝에 1996년부터 시작되는 제9차 5개년 계획에서는 '농업의 산업화'라는 방침으로 제시되었다(日中經濟協會, 1997, pp.76-79; 日中經濟協會, 1998, p.1). 順義縣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식량증산 위주에서 고수익작물의 증산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V. L鎮 C村의 사례

### 1. 조사촌의 개황

C村은 농업 이외의 산업이 발달하고 농외취업기회가 풍부하여 상당수 농촌주민은 농업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대규모 경영이 창출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에 따라 인접한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C村의 경우에도 당국에 의해 식량생산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이 적용되어 식량생산을 위해 집단농장이 조직되었다.

그러면서도 C村은 농촌개혁실험구인 順義縣 내에서도 당국의 정책의지가 경영에 비교적 덜 작용하며 경제적 논리에 의해 경영변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村서기는 상부로부터 개혁실험에 관한 특별한 자금지원이나 정책지도가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또 C村은 재정수입 확충을 위하여 2명의 외국인(한국인)에게 70畝라는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경영을 도급하고 있다.<sup>11)</sup>

11) 1ha가 15畝이므로 1畝는 1/15ha가 된다.

당정조직은 당지부와 촌민위원회, 경제합작사가 있으며, 이의 간부로 5명이 재직중이다. 이 밖에 村의 다른 사업단위는 없으며, 기업단위로는 집단농장이 있다. ‘北京市 C農場’이 정식명칭인 이 농장은, 順義縣의 다른 지역보다 늦은 1991년에 설립되어 현재 14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C村 당서기는 당정조직과 경제합작사는 서로 독립된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상·원칙상의 이야기일 뿐인 것으로 생각된다. 친인척관계로 얹혀 있고 서열이 분명한 마을 분위기로 보아 ‘당-촌민위원회-경제합작사’가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의사결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고 역동적인 촌민위원회와 경제합작사 간부들이 주도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계가 ‘당-촌민위원회-경제합작사’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수리조직은 村단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縣에서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C村에서는 1997년에 用水料로 7,000元을 납부하였다. 그리하여 수리시설의 관리는 당연히 縣 水利站의 소관이나, 수리시설이 村구역 내에서 파손된 경우 村단위에서 책임지고 수리하도록 한다. 농업기술 관련 조직은 縣과 鄉 단위에 존재한다. 鄉鎮企業의 경우에도 村內에는 없으나, L鎮 내에 복장제조공장 3개, 강철제품공장 2개, 화학공장 1개, 전기제품공장 1개, 제사공장 1개가 운영되고 있다.

1998년초 현재 C村의 경지면적은 690畝로 논은 전혀 없다. 村內에 87호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는 286명으로, 그 중 남자가 142명, 여자가 144명이다. 가구별 취업구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즉,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가 6호, 가구원 중 일부는 농업경영을 영위하나 일부는 비농업부문에 취업하고 있는 가구가 8호 있다. 전적으로 비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가 60호,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가구가 11호이며, 외국인 농장도 2호 있다.

<표 2> C村의 취업구성

	전업농	겸업농	비농가경제활동	전 체
가 구 수(호)	6	8	60	74
평균가구원수(명)	3.50	3.63	3.22	3.28
평균취업자수(명)	2.17	2.13	1.92	1.96

자료: 필자 작성.

비경제활동 가구의 가구원수는 1명 아니면 2명으로 대부분 노인가구이다. 이들을 제외한 C村 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3.28명, 취업자수는 1.96명인데,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가구원수, 취업자수는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었다.

## 2. 농지의 분배·재분배와 집단농장 대경영

C村에서는 1985년 人民公社가 해체되었으며, 1986년에 농가생산도급책임제가 도입되었다. 다른 곳에서는 농가생산도급책임제가 먼저 도입되고 그 결과로 人民公社가 해체된 것이 일반적 사례로 알려져 있으나, C村의 경우 그 반대의 순서를 밟았다. 즉, 농가생산도급책임제가 행정명령에 의해 실시된 것이다. 농지의 분배방식은 인구수 기준(按人口分地)으로 50%, 노동력 기준(按勞動力分地)으로 50%가 이루어졌다. 인구수에 의해 분배된 토지는 口糧田으로, 노동력 기준으로 분배된 토지는 責任田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 1명당 0.6畝, 노동력 1명당 1.0畝가 각 농가에 일률적으로 분배되었다. 이 때 도급기간은 15년으로 계약되었으며, 농지는 대체로 2군데 정도에 분산되어 있었다.

C村에서 토지의 재도급(轉包, 轉讓)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재도급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이 곳에서는 토지경영의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농외취업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사망이나 질병으로 농업경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도급 토지를 村에 반납하거나 다른 농가에 재도급하게 된다. 개인에 재도급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절차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도급비만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C村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은 11.04畝, 즉 1.47ha로 중국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업농의 경우 호당 경지면적은 13.92畝, 1.86ha에 이른다. 농가 간 경지분배도 흔히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구나 노동력을 기준 일변도로 했다고보다는 경영능력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결과로 나타나는 변동계수는 관찰치간의 격차구조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호당 경지면적의 변동계수는 1.4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전업농의 경우 경지면적의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한편 C村의 경우 집단농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1년에 출현하였다.

〈표 3〉 C村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과 그 격차

	전업농	겸업농	합 계
경영면적(畝)	13.92	8.88	11.04
변 동 계 수	1.62	1.05	1.43

주: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  
자료: 필자 작성.

여기에서는 상급단위에서 식량專業化를 위한 집단농장의 형성을 제의하자 바로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한다. 村당국은 1986년에 분배된 모든 농지를 1991년에 회수하였는데, 鄉鎮企業의 발전으로 농외취업기회가 확대되어 이러한 조치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다시 회수된 농지는 취업기회를 잡지 못한 가구에 대하여 노동력 1인당 2畝씩 재분배한 후 모두 집단농장에 귀속시켰다.

집단농장은 C村 식량생산을 전담하고 있다. 350畝의 농지에 밀과 옥수수를 이 모작하여 1997년의 경우 밀 32만 8,000斤, 옥수수 15만 斤을 생산하였다.<sup>12)</sup> 이 밖에 나머지 농지는 60畝는 채소를 심는 농가에, 60畝는 과수농가에, 70畝는 외국인에게 도급하였으며, 임지로 50畝, 극빈가구에 대한 무상대여에 20畝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양어장으로 이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다.

1997년 초까지 C村의 집단농장은 현지인 13명의 노동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대 2명, 30대 2명, 40대 8명, 50대가 1명이다. 학력은 初中 졸업이 대부분이고 高中 졸업은 없다.<sup>13)</sup> 이 중 4-5명은 트랙터 등 기계작업에 종사하고, 3-4명은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데,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급여는 월 500-700元 수준이다.

C村 집단농장은 대형트랙터 3대, 소형트랙터 2대, 관배수용 동력기 4대, 수확기 2대, 농업용 트럭 1대, 동력분무기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991년 당시 農村信用社로부터 대출한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농가가 집단농장의 트랙터를 사용하여 입작업할 때, 75마력의 경우 8시간 기준 1일당 400元, 55마력 300元, 18마력 80元의 비용을 지불한다.

12) 한국에서는 1斤이 0.6kg이나 중국에서는 0.5kg이다.

13) 중국에서는 흔히 교육수준을 文盲半文盲-小學-初中-高中-大專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무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의미한다.



1997년 집단농장의 총수입은 35만 9,000元으로, 밀과 옥수수의 판매수입이 32만 元, 과수원 및 채소밭 도급비 수입이 3만 9,000元이다. 국가에의 농업세가 2만 1,000元, 鄉 정부에 내는 각종 비용이 2만 元이고, 여기에 농장운영비를 제하면 순수입은 24만 元 정도가 발생한다. 이 중에서 11만 元을 農村信用社에 상환하였으며, 집단농장 사원보수로 8만 元이 사용되었고, 나머지를 집단에 유보하였다.

국가의 1997년 수매가격은 중등품을 기준으로 하여 밀 1斤당 0.76元, 옥수수 1斤당 0.56元이었다. 시장가격은 밀 0.71-0.72元, 옥수수 0.52-0.53元으로 국가수매가격을 하회하였다. 시장가격이 국가수매가격을 하회하게 된 것은 1994년과 1996년의 대폭적인 계약수매가격 인상 때문이다(日中經濟協會, 1998, pp.71-72). 1995년 이래 풍작으로 인하여 형성된 과잉재고 때문에 국가는 수매물량에 대해 보다 엄격한 품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국가수매 식량의 경우 수분함량이 밀 12.5%, 옥수수 13.5%이나, 시장유통 식량의 경우 수분함량이 밀과 옥수수 모두 17% 전후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에서 C村에 하달한 의무수 매물량은 7만 1,000斤이었는데, 이 중에서 밀이 70%, 옥수수가 3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진 국가수매는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고 한다. 조사 당시 농민에게는 국가수매가격이 시장

80%를 국가에, 나머지 20%를 판매하였다고 한다.

C村 집단농장의 경우 새로운 조직형식의 도입이나 소유권의 명확화에 관련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北京市 일대와 같은 선진지역의 경우 새로운 법인형식으로의 재조직화의 시도, 주식합작제의 도입 등 새로운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평균 이상의 시범적인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번 조사과정에서 주식합작제(股分合作制)를 실험하고 있는 사례도 인터뷰할 수 있었다. 順義縣 내에 있는 B鎮 Z村의 집단농장의 경우 경지면적 1만 3,893畝, 노동력 153명을 포괄하고 있는 대규모경영으로, 1994년부터 村內 7개 집단농장 중 6개 농장에서 주식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들 농장에서는 주로 직위에 따라 1인당 2,000-4,000元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았는데, 이 주식을 아직

구성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장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제의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주식합작제 도입의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은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나타냈다.

### 3. 대규모 개별경영의 사례

행정적으로 C村에 속하지는 않지만 농로 하나를 경계로 마을에 접해 있는 한 축산 농장을, C村 사람들은 이 일대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규모 개별경영의 사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농장의 경우 고용노동력에 의존한 기업농으로까지 발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농장은 10명의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1명당 월평균 1,000元의 임금이 지급된다. 종사하는 업무에 따른 임금격차도 큰 편이다. 잡역에 종사하는 경우 월 500-600元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반면 東北農業大學 출신으로 방역을 담당하는 기사에게는 縣소재지에 소재한 주택을 제공하고 월 2,000元의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 경우 북경의 도시戶口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생활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한다. 토지는 20畝를 村으로부터 도급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모두 연 1만 元이다. 농기계로 트럭 2대, 대형 트랙터 2대, 승용차 1대를 개인 소유하고 있다.

이 농가는 1990년부터 경영을 개시하여 현재 이 일대에서 제일 가는 부농으로 성장하였는데, 조사 당시에도 소 300두, 돼지 2,000두를 사육하고 있었다. 소의 경우, 內蒙古, 河北, 河南 등지에서 송아지를 구입하여 3개월 정도 단기 비육한 후 출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 사육두수의 변동이 심한 편으로 가장 많을 때는 500두까지 사육하였다. 사료로는 값싼 조사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인근 '연경맥주(燕京啤酒)' 공장에서 나온 술찌꺼기를 사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판매는 소의 경우 개별상인에게 직접 이루어지며, 돼지는 縣 인민정부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에 판매한다.

이 농장의 연간순이익은 100만 元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소 1두를 3개월 비육하여 출하할 때 500元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한여름에는 사육을 중단한다 하여도 최소한 연간 2회전 사육이 가능하다. 이 농장의 경영주는 이 곳의 축사 이외에도 인근村에 비슷한 규모의 축사를 더 보유하고 있다.

北京市 외곽의 축산경영에 대하여는 당국에서 적극 장려하여, 이 농장의 경우

에도 縣으로부터 일정의 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은 희박한 편이다. 이 농장에도 특별한 폐수처리시설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축사가 경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이 지역에서 축산이 계속 확대될 경우 환경오염과 경지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 틀림없으나, 이러한 문제에는 모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村당국은 재정수입 확보와 도시부로의 원활한 식료품 공급을 위해 외국인의 도급경영도 허용하고 있었다. C村에 있는 축산, 양어, 채소재배 등 복합경영을 대규모로 실시하는 한 농장의 경우, 한국인 경영주가 노동력을 10명이나 고용하고 있다. 그 중에는 전반적인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0대의 經理가 1명, 농작업 및 건축작업에 종사하는 20-30대의 청장년 노동력 4명, 주방 일에 종사하는 40대 여성 2명이 있다. 이들은 모두 吉林省 柳河, 通化, 延吉 및 河北, 四川省 등 외지 출신이다. 이 밖에 50대의 경비원 1명, 농사일을 돕는 40대의 여성노동력 2명을 현지 마을에서 고용하고 있다. 월급여는 경리의 경우 1,000元, 주방 아줌마 700元, 나머지는 450-500元 수준이다.

이 농장은 26畝의 토지를 도급하고 있는데, 1995년 초 향후 30년간을 도급받는 계약을 村과 체결하였다. 토지사용료는 畝당 연 200元으로, 계약 당시 3년분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였으며, 3년 후 다시 2년분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고, 5년 후부터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매년 畝당 100元의 수리비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村당국은 외국인의 토지도급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농장의 경영주는 친지에게 다른 토지의 도급을 알선하기도 하였다.

이 농장에서는 당초 경제동물, 채소 등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의 생산에 주력하였다. 먼저 5畝의 토지에 주택과 함께 개, 염소, 뱀,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사를 건축하였는데, 1995년에 개 600두, 염소 300두, 뱀 5,000마리를 출하하였다. 15畝에는 사육동물에게 먹일 옥수수를 파종하였는데 주요 작업은 村의 집체에 위탁하였다. 또 5畝에는 배추, 무, 상추, 파, 오이, 깻잎 등을 경작하였다. 이들 생산물은 경영주가 北京市 시내에서 경영하고 있는 식당에 공급되거나 그와 연결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 농장은 1996년 후반부터 축사를 건축하여 본격적으로 소사육에 착수하였는데, 앞에서 소개한 축산농장과 유사하게 河北, 內蒙古로부터 소를 매입하여 3개월 정도 단기비육하여 출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사육된 소는 다른 중개상에 판매하기도 하고, 하루에 1-2마리는 北京市 시내에 운영하고 있는 식육점에

직접 공급하기도 한다.

1997년 말 현재 축사에는 511두의 황소가 사육 중이었으며, 1997년 한해 동안 842두를 출하하였다고 한다. 필자가 농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농장을 둘러 담장을 쌓은 후 그 담장 안쪽을 따라 구덩이를 파서 사료를 저장하고 숙성시키는 창고로 이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당시까지 수지는 적자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 4. 마을 내 경영분화의 분석

이와 같이 C村에서는 집단농장이 식량생산을 담당하면서 개별농가는 식량 이외의 부문에 주력하는 한편 대다수 가구는 비농업부문에 취업하고 있다. 鄉鎮企業의 발달로 비농업취업기회가 풍부하기 때문에 개별경영에 비교적 쉽게 토지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개별농가와와는 전혀 규모를 달리 하는 대규모 개별경영의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경영분화의 현상과 구조를 村 전체 차원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호별 자료에 근거하여 C村의 수입구조와 수입격차를 분석한 것이 <표 4>인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평균수입은 전업농, 겸업농, 비농가경제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공 간 수입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 전체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이 지역의 경우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부 전업농에게

<표 4> C村의 수입구조와 수입격차

	총 수 입		농업수입	
	평균(만 元)	변동계수	평균(만 元)	변동계수
전 업 농	2.45	1.12	2.45	1.12
겸 업 농	2.08	0.28	0.85	0.50
비농가경제활동	1.90	0.81	—	—
전 체	1.96	0.81	1.54	1.24

자료: 필자 작성.

토지가 집중될 수 있었으며, 전국 또는 市차원의 식량계획하에서 이 지역에서 생산해야 할 식량부문을 집단농장이 떠맡쳐 줌으로써 전업농이 수익성 높은 작목으로 이전해 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鄉鎮企業의 광범위한 존재와 집단농장의 운영이 개별 전업농가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흥미 있는 사실은 전업농 내부의 수입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대규모 개별경영의 사례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었던 바이다. 결국 C村은 1991년 토지조정을 통하여 責任田을 촌영농장에 집중시키는 촌영농장모형(村辦農場模式)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도, 상시고, 임시고 등 농업노동자를 고용하는 대규모 농가를 육성·발전시키는 대농가모형(大戶農場模式)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즉, 농가생산도급책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농가의 분산경영과 집단의 통일경영을 상호결합하는 '雙層經營'제도가 기본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집단농장과 개별농가의 대규모경영이 분화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셋째, 비농업부문이 수입격차를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농가경제활동의 수입격차가 전업농의 수입격차보다도 작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이지만, 더욱 주목할 것은 겸업농의 수입격차이다. 겸업농의 수입은 매우 고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에도 비농업부문에서의 수입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겸업농 농업수입의 변동계수가 0.50이라 할 때, 총수입의 변동계수를 0.28로 만든 데에는 비농업수입의 작용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결과는 鄉鎮企業 등 비농업부문의 발전이 농촌 내 격차를 유발하는가 아닌가, 지역격차의 요인이 도시 내 격차인가, 농촌 내 격차인가 도·농 간 격차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흥미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C村 농가 중 전업농 6호 전부와 겸업농 8호 중 3호를 임의추출하여 농업경영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C村 농가의 경영내역을 나타낸 <표 5>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원수, 취업자수와 경지면적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토지의 분배가 인구나 노동력 기준보다는 경영능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1986년 농가생산도급책임제 도입시의 호당 경지면적과 현재의 호당 경지면적 사이에 상당한 변동이 있다는 점, 특히 전업농에게 토지를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셋째, 전업농의 경우 한 가지 작목에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겸업농의 경우 복합경영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5〉 C村 농가의 경영내역

가구 번호	호주 성명	가구원 수(명)	취업자 수(명)	총수입 (천 원)	농업수입 (천 원)	경지면적 (86년,畝)	경지면적 (97년,畝)	농 기 계 보유상황	작부구성 및 비농가 경제활동 현황
1	魏新民	4	3	80	80	-	60.0	트럭	사과
2	穆仁義	3	2	10	10	2.4	4.0	수동트랙터	채소
3	穆福全	3	2	13	13	2.0	5.0	수동트랙터	채소
4	張洪亮	3	2	16	16	2.0	7.0	수동트랙터	채소
5	石貴義	4	2	10	10	2.4	3.5	수동트랙터	채소
6	李秋海	4	2	18	18	2.4	4.0	수동트랙터	채소+양돈
7	穆仁勝	4	2	21	15	2.4	25.0	마차	밀+옥수수+채소+상업
8	史玉山	3	2	12	5	2.0	1.8	-	채소+자동차운전 교원
9	史文成	3	2	13	5	2.0	1.2	-	채소+수리국 직원

자료: 필자 작성.

비농가경제활동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2호를 임의추출하여 조사한 결과가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C村의 비농가경제활동은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집단농장, 개별 대농가에 농업 노동자로 고용되는 경우, 둘째 유리공장, 철제가구공장, 복장공장 등 鄉鎮企業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 셋째 상업, 운수업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이다. 많은 자금을 동원하여 택시를 구입하여 운수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가구의 수입격차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 VI.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順義縣에서는 1984-1986년에 걸쳐 농가생산도급책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집단경영체제가 개별경영화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공업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농촌의 비농업취업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농업노동력의 유출에 따라 식량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順義縣에서는 1986년 ‘대규모경영’의 실험을 개시하여 집단농장 설립을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C村에서는 1986년 농가생산도급책임제가 도입되었으며, 1991년에는 1986년에 분배된 농지를 회수하여 집단농장을 설립하였다. C村은 집단농장

〈표 6〉 C村의 비농가경제활동 현황

가구 번호	호 주 성 명	가구원 수(명)	취업자 수(명)	총수입 (천 元)	취업업종	취 업 처	비 고
1	李海峰	3	2	104	운수업 향진기업종업원	철제가구공장	택시소유
2	李 國	3	2	17	상업 향진기업종업원	복장공장	일용품행상
3	史自忠	3	2	13	사영기업종업원 향진기업종업원	복장공장	기사
4	韋建軍	5	2	12	상업		일용품 행상
5	馮仁廣	4	1	20	운수업		트럭소유
6	段春生	3	2	14	향진기업종업원	유리공장	
7	史自勇	3	2	11	향진기업종업원	철제가구공장 복장공장	
8	穆福海	3	2	12	향진기업종업원	철제가구공장 유리공장	
9	穆福華	5	1	6	농업노동자	집단농장	
10	張全亮	3	2	12	농업노동자 향진기업종업원	외국인농장 복장공장	
11	張全國	3	2	12	농업노동자 향진기업종업원	집단농장 복장공장	
12	張全力	3	2	12	농업노동자	개인과수원	

자료: 필자 작성.

에 식량생산을 전담시키는 한편으로 채소, 축산 등 수익성이 높은 부문은 개별농가가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鄉鎮企業의 발달로 개별경영의 토지집중이 비교적 용이하여 다른 농가의 수습 배에 달하는 경지면적을 지닌 개별 대규모경영의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

경영분화의 현상과 구조를 村 전체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평균수입은 전업농, 겸업농, 비농가경제활동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업농 내부의 수입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농가경제활동의 수입격차가 전업농의 수입격차보다도 작으며, 겸업농의 수입은 가장 고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에도 비농업부문에서의 수입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C村은 ‘雙層經營’제도가 기본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집단농장과

개별농가의 대규모경영이 분화되는 과정에 있다. 鄉鎮企業의 광범위한 존재와 집단농장의 운영은 전업농 및 대규모 개별농가 발전의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전업농경영이 수입격차를 유발하고 있다면 비농업부문에의 취업이 수입격차를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 지역의 특징적 현상이다.

현재 중국 농업은 2억 3,000만 호의 농가가 9,500만 ha의 농지를 개별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처럼 호당 0.4ha를 경작하는 영세소농체제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도 없고 도·농 간 격차의 확대를 막을 수도 없다.

이러한 출구 없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농업의 산업화’와 ‘경영규모의 확대’이다. 이에 1996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9차 5개년 계획을 채택하면서 ‘兩個轉變’의 기본방침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兩個轉變’이란, 첫째 축산·채소재배 등에서는 농업의 산업화에 의해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하고, 둘째 경종농업에서는 영세소농 위주에서 대규모경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이는 양보다는 질로, 양적 생산성보다는 부가가치 위주의 생산성으로의 중점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日中經濟協會, 1997, p.83; 中國社會科學院農村發展研究所·國家統計局農村社會經濟調查總隊, 1998, pp.60-72).

이러한 흐름 가운데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한 C村의 ‘雙層經營’체제는 집단농장과 개별농가가 경종농업과 축산·채소재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兩個轉變’을 시도하는 ‘適度規模經營’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 參 考 文 獻

1. 문순철, “1980년대 후반 이후 중국 농촌 토지제도의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31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1996.
2. 이일영, “중국 농업구조 개혁의 성과와 한계—1978년 이후의 생산책임제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19권 제1호,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 1995.
3. \_\_\_\_\_, 『중국의 농촌개혁과 경제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4. 國家統計局農村社會經濟調查總隊 編, 『中國分縣農村經濟統計概要 1980-1987』, 中國統計出版社, 1989.
5. \_\_\_\_\_, 『中國分縣農村經濟統計概要 1990』, 中國統計出版社, 1992.
6. 綦好東, “我國現行農地產權結構的缺陷及重構的實證分析,” 『農業經濟問題』 第1



- 期, 中國農業經濟學會・中國農業科學院農業經濟研究所, 1998.
7. 潘耀國・崔傳義, “沿海地區農業規模經營模式探討,” 『農民日報』, 1995. 11. 22.
8. 北京市統計局 編, 『北京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1997.
9. 閻崇年 主編, 『中國市縣大辭典』,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10. 林毅夫 外, 『中國的奇蹟』, 三聯書店, 1995, 韓東勳 譯, 『중국의 기적』, 백산서당, 1996.
11. 張浩・馬艾德, 『農業四稅基礎知識』,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12. 中共中央書記處農村政策研究室資料室 編, 『中國農村社會經濟典型調查(1985)』,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13. 中國農業部, 『中國農業發展報告 '95』, 農業出版社, 1995, 菅沼圭輔 譯, 『中國農業白書—激動の'79-'95』, 農文協, 1996.
14. 中國農村發展問題研究組 編, 『農村・經濟・社會』第1-3卷, 知識出版社, 1985.
15. \_\_\_\_\_, 『農村・經濟・社會』第4卷, 農村讀物出版社, 1986.
16. 中國社會科學院農村發展研究所・國家統計局農村社會經濟調查總隊, 『1997-1998年: 中國農村經濟形勢分析與預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8.
17. 菅沼圭輔, “中國における「食糧大規模經營」—北京市順義縣の集團農場の事例研究,” 『農業經濟研究』第61卷 第2號, 日本農業經濟學會, 1989.
18. 白石和良, “中國的農業・農村的再組織化と雙層經營體制,” 『農業總合研究』第48卷 第4號, 日本農業總合研究所, 1994.
19. 三谷孝 編, 『農民が語る中國現代史—華北農村調査の記録』, 內山書店, 1993.
20. 石田浩 編, 『中國傳統經濟的變革と工業化—上海近郊農村調査報告』, 晃洋書房, 1996.
21. 石田浩, 『中國農村的歷史と經濟—農村變革の記録』, 關西大學出版部, 1991.
22. \_\_\_\_\_, 『中國農村經濟的基礎構造—上海近郊農村的工業化と近代化のあゆみ』, 晃洋書房, 1993.
23. 田島俊雄, 『山東省武城縣農村調査報告』,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調査報告 第26集, 1993.
24. 日中經濟協會, 『1996年の中國農業—功を奏した食糧増産政策』, 1997.
25. \_\_\_\_\_, 『1997年の中國農業—食糧生産過剰に悩む中國農業』, 1998.
26. 田島俊雄, 『中國農業の構造と變動』, 御茶の水書房, 1996.

27. 中兼和津次 編, 『改革以後の中國農村社會と經濟一日中共同調査による實態分析』, 筑波書房, 1997.
28. 中生勝美, 『中國村落の權力構造と社會變化』, アジア政經學會, 1990.
29. Friedman, Edward, Paul Pickowicz and Mark Selden, *Chinese Village, Socialist State*, Yale University Press, 1991.
30. Parish, William and Martin King Whyte, *Village and Family in Contemporary China*, Chicago University Press, 1978.
31. Potter, Sulamith and Jack, *China's Peasants—The Anthropology of R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32. Putterman, Louis, *Continuity and Change in China's Rural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3.